

올스타전 대거 출전한 KIA, '별들의 잔치' 빛냈다

티니핑·표치수 분장 등 '눈길' 김태군 홈런·박찬호 공수 활약 나눴 8-6 승리, 4연승 전인 이범호 감독 승리 감독상 수상

전국구 인기를 자랑하는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별들의 축제'인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대거 출전에 팬심을 뜨겁게 달궜다. 나눴 올스타 유격수와 1루수로 박찬호가 선발 출전했고 김호령 김태군이 경기 후반 대타 등으로 교체투입, 성영탁과 최지민이 마운드를 지키며 팬들을 열광케했다.

KIA와 키움 히어로즈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 NC 다이노스가 속한 나눴 올스타는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

스타전에서 드림 올스타(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SSG 랜더스)를 상대로 8-6으로 승리했다.

KIA는 성영탁과 최지민이 중간투수로 활약했고, 박찬호(유격·1루수), 김호령(외야수), 김호령(포수)이 팬 투표 및 선수단 투표, 감독 추천 선수로 선발돼 총 5명이 별들의 잔치에 도전장을 냈다.

KIA 선수들 중 가장 먼저 올스타전의 문을 연 것은 박찬호였다. 1회초 드림 4번 타자 디아즈(삼성)가 유격수 방면 내야 안타를 때렸고 박찬호가 1루수에게 송구 실책을 범하며 1점을 먼저 헌납했다. 그러나 그는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말세안 양과 함께 분홍색 가발과 하얀 망토를 두른 '티니핑'으로 변신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때렸고 문현민의 땅볼에 3루로 진투, 이도운의 안타에 맞춰 홈을 밟으며 득점에 성

공했다. 2번째 타석에 들어섰던 3회말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5회말에는 병살타, 8회말에는 6번의 공 경합 끝에 뜬 공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1루수로 수비위치가 변경된 7회초부터 장성우와 배정대의 땅볼을 각각 유격수와 2루수로부터 받은 송구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2년 연속 KBO 수비왕 수상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박찬호를 뒤이어 생애 첫 올스타전에 참가한 김호령을 비롯해 김태군도 본격적인 쇼 타임에 나섰다. 7대 6으로 앞선 8회말 김호령은 무표정한 얼굴과 계란 프라이 헬멧, 군인 점퍼를 두르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표치수 중사 코스를 한 채 타석에 들어섰고 관중석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관중들의 웃음에도 한 치의 표정변화 없이 김호령 다운 모습을 보인 그의 타구는 좌측 담장으로 멀리 날아갔

지만 아쉽게도 뜬공으로 잡히며 물러났다. 김태군은 같은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 이어 드림 투수 박영현(KT)의 가운데로 몰린 시속 147km 직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며 통산 6번째 올스타전 출전에서 처음으로 홈런을 기록했다.

김호령과 마찬가지로 올스타전 유니폼을 처음으로 입은 성영탁은 3회초 트로트 가수 영탁으로 변신해 인기 가요 '폼 미쳤다'의 안무를 선보였다. 하지만 드림 전민재·레이에스(롯데), 구자욱·디아즈(삼성)에게 안타를 내주며 1이닝 동안 5피안타 3실점(3자책)으로 성적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8회초 마운드에 등판한 최지민은 디아즈를 땅볼로 잡은 뒤 0.1이닝 만에 교체돼 아쉬움이 남았지만 포켓몬스터 '잠만보' 머리카락을 착용한 채 이목을 끌었다.

경기 종료 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나눴 올스타를 이끈 이범호(KIA) 감독이 승리 감독상을 수상했고, 올스타전 MVP인 '미스터 올스타'에는 박동원(LG)이 선정됐다. 올스타전 승리 팀 상금은 3000만원, MVP에게는 기아자동차 EV4 차량을 선물로 준다.

한편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대전에서 열린 올스타전은 34도 무더운 날씨에도 약 1만7000여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올스타전 통산 24번째 매진에 4년 연속으로 올스타전 입장권이다 팔린 것이다.

특히 이번 올스타전도 나눴 올스타가 8-6으로 승리하면서 나눴 올스타는 4연승을 거뒀고 나눴과 드림 올스타전의 대결 형식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올스타전 성적 5승 4패 우위를 점했다. **민현기 기자**

↓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나눴 올스타로 출전한 KIA 타이거즈 박찬호(왼쪽부터), 김태군, 최지민, 성영탁, 김호령.

연합뉴스·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은행 배드민턴단 양병진, 개인단식 동메달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광주은행 배드민턴단 양병진(사진)이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개인단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양병진은 지난 10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일부 개인단식 준결승에서 최지훈(삼성생명)에 세트 점수 0-2로 져 동메달을 차지했다. 양병진은 64강전에서 김바다(삼성생명)에 기권승을 거둔 뒤 32강전서 고경보(당



진시청)를 2-1(16-21, 21-17, 21-15)로, 16강전서 김동훈(밀양시청)을 2-1(21-19, 17-21, 21-11)로, 8강전서 박상용(요넥스)을 2-1(5-21, 21-19, 21-14)로 연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양병진은 준결승서 최지훈에 첫 세트를 12-21로 내준 뒤 2세트에서도 13-21로 완패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 진흥중,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결승서 동성중 3-0 완파

광주 진흥중 야구부가 제29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진흥중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동성중을 3-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지역 6개 중학 야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A조에 속한 진흥중은 앞선 조별리그에서 중장베이스볼클럽(중장BC)을 12-7로 이겼으나 무등BC에 7-8로 졌다. 진흥중은 1승 1패로 중장BC·무등BC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대회 규정상 실점이 가장 적어 결승에 진출했다. **최동한 기자**

진흥중은 결승에서 B조 1위 동성중을 상대로 투수들의 무실점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에 힘입어 완승을 거뒀다. 최우수선수상은 진흥중 류시경이, 우수투수상은 진흥중 정원이 각각 수상했다. 무등BC 안용섭은 최다홈런상(2개), 타격상(6타수 5안타 타율 0.833)을 각각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다. 최다타점상은 동성중 박정빈(7타점), 최다루타상은 진흥중 김준엽(4개), 감투상 동성중 최무영, 미기상 동성중 박지웅이 각각 수상했다. 진흥중을 우승으로 이끈 김승남 감독은 감독상을, 김성호 교장이 지도상을 각각 받았다. **최동한 기자**

광주교통공사 황수련, 청풍기전국유도대회 금빛 메치기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이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빛 메치기에 성공했다. 황수련은 지난 9~11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52kg급 결승에서 장예진(포항시청)을 상대로 반칙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수련은 앞서 8강전서 홍채림(포항시청)을 팔가로우워끼기 한판승으로, 준결승서 양서우(순천시청)를 안다리후리기 유효승으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황수련은 결승서 장예진과 만나 지도 3개를 따내며 반칙승으로 우승했다. 광주교통공사 이주연과 김혜미는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주연은 여일부 개인전 -63kg급에 출전해 8강전 지연주(충북도청)와 준결승전 채정아(포항시청)를 모두 한판승으로 꺾었으나 결승에서 차민지(제주도청)에 업어치기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에 만족했다. 김혜미는 여일부 개인전 -70kg급 8강전서 유예진(경남도청)을 허리후리기 유효를 따내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부상으

로 기권해 동메달에 그쳤다. 광주체육고 유도부는 이번 대회에서 금 1개와 은 2개를 수확했다. 광주체고 김하은(1년)은 여고부 78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하은은 결승에서 차은서(인천체고)를 상대로 지도 3개를 먼저 따내며 반칙승을 거뒀다. 신민성(3년)은 남고부 -100kg급 결승에서 박근호(경남체고)에 유효패를 당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진재현(2년)은 남고부 -90kg급 준결승에서 김준재(목포고)에 유효패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최동한 기자**

광주체고 박주혁, 화랑기 양궁대회 '3관왕'

컴파운드 신정우 개인전 금메달 광주체고 금 5·은 2·동 5개 수확

'남자 양궁 차세대 스타' 박주혁(광주체고·사진)이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 3관왕에 올랐다. 박주혁은 지난 12일 전북 임실 오수국제양궁장에서 끝난 대회 리커브남자고등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태현(효원고)을 세트스코어 6-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지난 10일 거리별 경기 50m와 30m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박주혁은 대회 3



관왕을 차지했다. 박주혁은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전과 남자고등부 단체전에도 각각 동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에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혼성단체전에서는 남지현과 출전해 4강에서 전남(서익언·조한이)에게 1-5로 패했고, 남자 단체전에서는 심유한·전준희·조성철과 팀을 이뤄 강원팀에 3-5로 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다. 심유한은 앞서 지난 10일 남고부 30m

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고등부에서는 송하린이 지난 10일 60m에서 344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지현·김성령·이윤아·전지현은 12일 여고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남지현은 10일 50m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컴파운드 부문에서는 광주 양궁의 기대주 신정우가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눈길을 끌었다. 신정우는 결승에서 전한서(강원체고)를 143-10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신정우는 김예령과 짝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따내며 광주 양궁의 저력을 과시했다. **최동한 기자**